

유럽차 비켜라... 국산 디젤 세단 나가신다

유럽차가 주도하는 디젤 세단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도 승부를 가릴 준비를 갖췄다. 한국 GM의 말리부 디젤 세단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디젤을, 르노삼성자동차가 SM5의 디젤 모델을 각각 출시하며 '디젤차 삼국지'를 펼칠 전망이다. 현대차의 그랜저는 준대형급 세단으로, 다른 국내 브랜드의 중형 모델과는 체급에서 차이가 나지만, 말리부(2014년형 LT 디럭스)의 경우 가격차가 300여만원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 3개 차종을 비교해 볼만하다.

한국 GM·현대차·르노삼성 '디젤차 삼국지'

말리부-성능, 그랜저-출력, SM5-연비 강점



르노삼성 SM5

현대차 그랜저

한국 GM의 말리부

◇엔진·변속기, 국산 대 외국산 대결=그랜저 디젤은 싼타페·맥스쿠르스 등 대형 레저용 차량(RV)에 적용한 2.2ℓ R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한 R2.2 E-VGT 클린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3개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최고출력 202마력(3800rpm), 최대토크 45.0kg·m(1750~2750rpm)의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엔진 사이징이 큰 만큼 배기량도 2199cc로 가장 크다.

말리부는 독일 오펜사의 2.0 디젤 엔진(1956cc)을, SM5는 프랑스 르노그룹이 개발한 1.5 dCi 디젤 엔진(1461cc)을 각각 장착했다. 말리부의 최고출력은 156마력(3750rpm), 최대토크 35.8kg·m(1750~2500rpm)이다. SM5의 최고출력은 110마력(4000rpm), 최대토크 24.5kg·m(1750rpm)이다.

중저속 실용 구간에서 강력한 힘을 내는 디젤차답게 최고출력·최대토크를 뽑아내는 rpm은 엇비슷하다. 변속기는 공통으로 6단 자동이지만 말리부는 일본 아이신사 제품을, SM5는 독일 게트락사의 듀얼클러치(DCT)를 사용했다.

◇연비·가격 경쟁도 불만=디젤차의 핵심인 연비 부문에서는 SM5가 복합 16.5km/ℓ로 1위를 차지했다. 그랜저는 14.0km/ℓ(17인치 타이어 기준), 말리부는 13.3km/ℓ이다.

SM5는 정확한 판매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500만~2700만원대로 책정할 전망이다. 말리부 2014년형은 2703만~2920만원이지만 현재 물량 부족으로 판매가 중단됐고 하반기 출시하는 2015년형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랜저 디젤은 3254만~3494만원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수입 디젤차에 익숙한 고객들을 국산 디젤차로 끌어오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SM5(2.0 플레티넘) 가솔린 모델 가격은 2230만~2915만원이다. 디젤 모델도 가솔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앞뒤 바퀴간거리(축거)는 준대형인 그랜저가 2845mm로 가장 길고, SM5 2760mm, 말리부 2737mm 순이다.

그랜저는 올해 1~5월 3만2782대가 팔려 SM5(94061대)와 말리부(6695대)를 밀쳐잡지 못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그랜저와 SM5 디젤 주자들이 신규 투입되고, 출시 1개월 만에 품절됐던 말리부 디젤도 2015년형으로 돌아와 만만치않은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 강화

도심·고속도로 모두 오차 5% 이내 적용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 올해부터 오차범위 5% 이내로 단일화돼 훨씬 엄격해진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으므로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 주도의 연비 재검증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 복합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싼타페는 국토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부 기관 조사 결과를 놓고서는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복합연비만 따지지만 산업부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비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어진다. 올해부터는 또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이같은 내용의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동차 오래 타기

6 오일 점검

자동차 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일류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각종 오일의 점검 방법을 알아본다.

엔진오일 1만~1만5000km 주행 교환

◇엔진오일 점검
엔진이 정상온도가 된 이후 2~3분 경과 뒤 엔진오일 게이지를 뽑아 최고~최저 사이 위치시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량 기준, 엔진오일은 1만~1만5000km 주행 시마다 교환하면 된다.

◇자동변속기 오일 점검
엔진 및 자동변속기 오일이 정상온도가 된 이후(일정주행 이후) 평탄한 곳에 차를 정차한다. 'P'레인지에서 자동변속기 오일게이지를 뽑아 점검하면 된다. 매 2만km 마다 점검하고, 10만km 주행시 교환한다. 차종별 차이는 있다.

◇브레이크 오일 점검
브레이크 오일의 경우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수성이 강하므로 매 4만km 마다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교환 장기간 사용시 베이퍼로크(브레이크액 기포발생)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 박원섭 과장>

FTA 3년... 유럽차 질주 더 빨라진다

오늘부터 중대형 관세 폐지, 소형 인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째를 맞아 7월 1일부터 일부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바람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럽차 중 배기량 1천500cc 이상 자동차의 관세율은 현행 1.6%에서 전면 철폐된다. 1,500cc 미만 소형차는 현행 4.0%에서 2.6%로 인

하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0년 9만562대 수준이던 수입차 판매량은 2011년 10만5천377대로 처음 연간 10만대를 넘어섰다. 이어 2012년엔 13만858대, 2013년에 15만6천497대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1~5월 누적 판매량이 7만6천460대로 이른다.

수입차의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국내 전체 신차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12%를 넘어섰고,

올해는 1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유럽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 등 유럽차 판매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유럽차 중에서는 BMW·벤츠·폭스바겐·아우디 등 독일 4사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는다. 다음 달부터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면 유럽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유럽차

솔리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하로 소비자들은 평균 50만~8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유럽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EU의 28개 회원국도 내달 1일부터 한국산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수입차업체가 국내 마케팅을 강화 하듯 국산 완성차들도 유럽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약기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2층

대산프리모가발